[[2026년 제 37회 감정평가사 회계학 정답 및 해설]]

<해답> 41. ⑤
보고기업이 반드시 법적 실체일 필요는 없다.

<해답> 42. ②
보고기간 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의 약정사항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대여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해답> 43. ②
순공정가치는 재고자산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정상거래의 가격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기업특유의 가치가 아니다.

<해답> 44. ④
1) 기초재고 ₩2,000 감소
(-) 기말재고 ₩1,000 감소
= 매출원가 ₩1,000 감소
2) 가중평균법에 의한 매출원가 = ₩55,000 - ₩1,000 = ₩54,000

<해답> 45. ②
1) 항목별 기준 = 100개(A2) X (₩1,200 - ₩1,150) + 150개(B1) X (₩2,000 - ₩1,900) + 200개(B2) X (₩2,100 – ₩2,050) = ₩30,000
2) 조별기준
ㄱ. A조의 취득원가 = 80개 X ₩1,000 + 100개 X ₩1,200 = ₩200,000
ㄴ. A조의 순실현가능가치 = 80개 X ₩1,100 + 100개 X ₩1,150 = ₩203,000
-> A조는 평가손실이 없다.

ㄷ. B조의 취득원가 = 150개 X ₩2,000 + 200개 X ₩2,100 = ₩720,000
ㄹ. B조의 순실현가능가치 = 150개 X ₩1,900 + 200개 X ₩2,050 = ₩695,000
-> B조의 평가손실 = ₩720,000 - ₩695,000 = ₩25,000

<해답> 46. ②
초기 가동손실(ㄴ), 관리 및 일반간접원가(ㄷ),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ㅁ)는 유형자산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답> 47. ③
1) 연평균지출액 = ₩200,000 X 9/12 + ₩500,000 X 3/12 = ₩275,000
2) 20X1년 특정차입금 자본화금액 = ₩300,000 X 9/12 X 8% = ₩18,000
3) 자본화이자율 = ₩22,000 ÷ ₩400,000 = 5.5%
 - 연평균차입금액 = ₩240,000 X 10/12 + ₩400,000 X 6/12 = ₩400,000
 - 실제 이자비용 = ₩240,000 X 10/12 X 6% + ₩400,000 X 6/12 X 5% = ₩22,000
4) 20X1년 일반차입금 자본화금액 = [₩275,000 - (₩300,000 X 9/12)] X 5.5% = ₩2,750(한도 : ₩22,000)
5) 20X1년 자본화할 차입원가 = ₩18,000 + ₩2,750 = ₩20,750

<해답> 48. ①
1) 20X1년 초 복구충당부채 = ₩5,000 X 0.7473 = ₩3,737
2) 20X1년 말 설비자산 장부금액 = ₩21,737 - [(₩21,737 - ₩0) X 1/5] = ₩17,390
3) 20X1년 말 복구충당부채 장부금액 = ₩3,737 X 1.06 = ₩3,961
4) 20X2년 초 복구충당부채 = ₩8,000 X 0.7921 = ₩6,337
-> 20X2년 초 복구충당부채 증가액 ₩2,376을 설비자산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5) 20X2년 감가상각비 = (₩17,390 + ₩2,376 - ₩0) X 1/4 = ₩4,942
6) 20X2년 이자비용 = ₩6,337 X 6% = ₩380
7) 20X2년도 총비용 = ₩4,942(감가상각비) + ₩380(이자비용) = ₩5,322

<해답> 49. ⑤

①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크거나 같을 수 있다.
②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③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자산손상의 징후에 해당하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④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해답> 50. ③

1) 취득수수료 = 400주 X ₩100 = ₩40,000 비용
2) 20X1년 9월 1일 무상증자로 인한 평균단가 재조정 = (400주 X ₩10,000) ÷ (400주 + 100주) = ₩8,000
3) 20X1년 12월 1일 처분손익 = ₩3,564,000(처분금액) - (300주 X ₩8,000) = ₩1,164,000 처분이익
   * 처분금액 = 300주 X (₩12,000 - ₩120) = ₩3,564,000
4) 20X1년 말 평가손익 = 200주 X (₩13,000 - ₩8,000) = ₩1,000,000 평가이익
5) 20X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40,000) + ₩1,164,000 + ₩1,000,000 = ₩2,124,000 증가

<해답> 51. ③

1) 20X1년 초 장부금액 = ₩100,000 X 0.7513 + ₩7,000 X 2.4868 = ₩92,538
2) 20X1년 이자비용 = ₩92,538 X 10% X 9/12 = ₩6,940

<해답> 52. ⑤

1) 3년간 상각액 합계 = ₩3,288 + ₩3,781 + ₩4,348 = ₩11,417
2) 20X1년 초 발행금액 = ₩100,000(액면금액) - ₩11,417(사채할인발행차금 계) = ₩88,583
3) 유효이자율 = ₩13,288(20X1년 이자비용) ÷ ₩88,583(20X1년 초 장부금액) = 연 15%

<해답> 53. ④

1) 20X1년 초 부채요소 = ₩107,700 X 0.7938 + ₩5,000 X 2.5771 = ₩98,378
2) 20X1년 말 장부금액 = ₩98,378 X 1.08 - ₩5,000 = ₩101,248

3) 20X1년 초 상환할증금 현재가치 = ₩7,700 X 0.7938 = ₩6,112
4) 20X1년 말 상환할증금 장부금액 = ₩6,112 X 1.08 = ₩6,601
5) 20X2년 초 부채의 장부금액 = ₩101,248 - (₩6,601 X 40%) = ₩98,608
6) 20X2년 이자비용 = ₩98,608 X 8% = ₩7,889

<해답> 54. ④
1) 유효이자율 = ₩8,412 ÷ ₩105,151(20X1년 초 장부금액) = 8%
2) 20X1년 말 장부금액 = ₩105,151 X 1.08 - ₩10,000 = ₩103,563
3) 20X2년 3월 말 경과이자를 포함한 장부금액 = ₩103,563 + ₩103,563 X 8% X 3/12 = ₩105,634
4) 20X2년 3월 말 상환된 장부금액 = ₩105,634 X 40% = ₩42,254
5) 20X2년 3월 말 경과이자를 포함한 지급현금 = ₩42,254(장부금액) + ₩746(상환손실) = ₩43,000

<해답> 55. ⑤
ㄴ.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 금융부채
ㅁ. 우선주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상환우선주 : 금융부채

<해답> 56. ②
1) 20X2년 기초자본 = ₩25,000(자본금) + ₩5,000(주식발행초과금) + ₩10,000(이익잉여금) - ₩6,000(자기주식) + ₩2,000(재평가잉여금) = ₩36,000
2) 20X2년 말 자본총계 = ₩36,000(기초 자본총계) + 5주 X ₩550 + ₩13,000(현물출자) - ₩1,500(현금배당) + ₩10,000(당기순이익) = ₩60,250

<해답> 57. ①
② 희석주당이익 계산시 증분주식 1주당 이익이 가장 작은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를 증분주식 1주당 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보다 먼저 포함시킨다.
③ 조건부발행보통주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기본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한다.

④ 자본금전입, 무상증자, 주식분할의 경우 유통주식수는 증가한다.
⑤ 당기에 발행된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발행시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해답> 58. ④
1) 매출액 = ₩1,300,000 X 98% = ₩1,274,000
2) 매출원가 = ₩1,000,000 X 98% = ₩980,000
3) 20X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1,274,000(매출액) - ₩980,000(매출원가) - ₩2,000(손상차손) - ₩5,000(직접비용) = ₩287,000 증가

<해답> 59. ②
20X1년 이자비용 = ₩1,700,000 - ₩1,500,000 = ₩200,000 감소

<해답> 60. ①
1) 20X1년 진행률 = 1,000시간 ÷ (1,000시간 + 4,000시간) = 20%
2) 20X1년 계약이익 = (₩1,200,000 - ₩800,000) X 20% = ₩80,000
3) 20X2년 진행률 = 3,000시간 ÷ (3,000시간 + 3,000시간) = 50%
4) 20X2년 계약이익 = (₩1,200,000 - ₩1,000,000) X 50% - ₩80,000 = ₩20,000

<해답> 61. ⑤
20X1년 말 순확정급여부채 = ₩20,000(기초 순확정급여부채) + ₩2,000(순이자) + ₩90,000(당기근무원가) - ₩70,000(사외적립자산 출연) + ₩7,000(재측정요소 손실) - ₩3,800(사외적립자산 재측정이익) = ₩45,200

<해답> 62. ④
1) 20X1년 보상비용 = (100명 – 3명 – 13명) X 10개 X ₩100 X 1/3 = ₩28,000
2) 20X2년 보상비용 = (100명 – 7명 – 12명) X 10개 X ₩100 X 2/3 - ₩28,000 + (100명 – 7명 – 12명) X 10개 X ₩20 X 1/2 = ₩34,100

<해답> 63. ⑤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인식한다.

<해답> 64. ⑤

ㄱ. 리스이용자의 규모, 특성,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소액인지는 절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ㄴ.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회계처리 선택은 리스별로 적용해야 한다.

<해답> 65. ②

1) 20X1년 말 장부금액 = ₩1,000,000 - [(₩1,000,000 - ₩0) X 4/10] = ₩600,000

2) 20X2년 감가상각비 = (₩600,000 + ₩300,000 - ₩200,000) X 1/5 = ₩140,000 감소

<해답> 66. ④

1) 20X1년 말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 = ₩150,000 감소

-> 20X1년도 원가모형에 따른 감가상각비 ₩50,000을 투자부동산 평가손실 ₩200,000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은 ₩150,000 감소한다.

2) 20X2년 투자부동산 평가손실 = ₩100,000

3) 20X2년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반영 후 당기순이익 = ₩500,000 - ₩100,000 = ₩400,000

4) 20X2년 말 이익잉여금 = ₩2,000,000 - ₩150,000 + ₩400,000 = ₩2,250,000

<해답> 67. ④

1) 이자지급 : 영업활동 또는 재무활동

이자수취 : 영업활동 또는 투자활동

배당금지급 : 재무활동 또는 영업활동

배당금수취 : 영업활동 또는 투자활동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을 보고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이자지급, 배당금지급은 포함하지 않고 이자수취, 배당금수취와 같이 현금유입이 있는 거래만 포함하는 것이다.

2) 영업활동순현금으로 보고할 수 있는 최대금액 = ₩200,000(당기순이익) + ₩40,000(법인세비용) - ₩15,000(유형자산처분이익) + ₩22,000(이자비용) - ₩10,000(이자수익) + ₩9,000(이자수취) - ₩25,000(법인세의 납부) + ₩5,000(감가상각비) - ₩20,000(매출채권 증가) + ₩14,000(재고자산

감소) + ₩16,000(매입채무 증가) - ₩8,000(배당금수익) + ₩6,000(배당금수취) = ₩234,000

<해답> 68. ①

② 배당금 ₩10,000을 선언하고 현재 미지급상태인 경우 유동부채가 증가하여 유동비율, 당좌비율은 감소한다. 부채비율은 부채의 증가, 자본 감소로 증가한다.

③ 차량운반구는 비유동자산으로 차량운반구 취득으로 인해 유동자산은 감소, 유동부채는 증가하여 유동비율, 당좌비율 모두 감소한다. 부채비율은 부채의 증가, 자본 불변으로 증가한다.

④ (차) 현금(유동자산, 당좌자산 증가) 12,000 (대) 선수금(유동부채 증가) 12,000

해당 거래는 유동(당좌)자산 및 유동부채는 모두 증가하나 유동비율, 당좌비율의 기존비율이 1보다 크므로 유동부채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 비율은 감소한다. 부채비율은 부채 증가, 자본 불변으로 증가한다.

⑤ (차) 상품(유동자산 o, 당좌자산 x) 10,000 (대) 매입채무(유동부채) 10,000

해당 거래는 유동자산 증가, 유동부채 증가로 유동비율은 감소하며(기존비율이 1보다 큼), 당좌비율 또한 유동부채만 증가하여 감소한다. 부채비율은 부채 증가, 자본 불변으로 증가한다.

<해답> 69. ②

1) 지분법이익 = (₩50,000 - ₩5,000) X 30% = ₩13,500

* ㈜감평과 ㈜한국간의 상품 판매거래는 내부거래이므로 미실현된 내부거래 이익 ₩10,000 x 50% = ₩5,000은 지분법 이익 계산시 제거한다.

2) 지분법자본변동 = ₩15,000 X 30% = ₩4,500

3) 20X1년 말 장부금액 = ₩330,000 + ₩13,500 + ₩4,500 = ₩348,000

<해답> 70. ①

1) 이전대가 = ₩62,000(단계별 취득에 따라 이미 취득한 fvpl금융자산의 공정가치) + 900주 x ₩1,000 + ₩12,000(조건부대가) = ₩974,000

2) 피취득회사의 순자산공정가치 = ₩800,000 + ₩20,000(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 ₩6,000(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우발부채는 충당부채로 인식) = ₩814,000

3) 영업권 = ₩974,000(이전대가) - ₩814,000(피취득회사의 순자산공정가치) = ₩160,000

<해답> 71. ①

품질원가에서 적합품질이란 설계 사양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였는지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답> 72. ④

1) 기존 제품 A에 대한 단위당 공헌이익 = ₩100(단위당 판매가) - ₩45(단위당 변동원가) = ₩55
2) 기존 제품 A에 대한 손익분기점 판매수량 = (₩7,000 + ₩4,000) ÷ ₩55(단위당 공헌이익) = 200개
3) 변경된 제품 A에 대한 단위당 공헌이익 = ₩80(단위당 판매가) - ₩45(단위당 변동원가) = ₩35
4) 변경된 제품 A에 대한 고정원가 = 200개(손익분기점 판매량) X ₩35 = ₩7,000
5) 절감해야 하는 총 고정비 = ₩11,000 - ₩7,000 = ₩4,000

<해답> 73. ②

1)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 (₩1,000 + ₩500 + ₩600) ÷ 60단위(생산량) = ₩35
2)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 ₩300 ÷ 50단위(판매량) = ₩6
3)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 = 50단위 X (₩100 - ₩35 - ₩6) - ₩500(고정원가 총액) = ₩2,450

<해답> 74. ④

1) 전환원가 = ₩2,000(직접노무원가) ÷ 20% = ₩10,000
2) 재고자산

기초 직접재료	₩1,000	기말 직접재료	₩1,500
직접재료 매입액	10,000	기말 재공품	600
기초재공품	1,500	기말제품재고액(?)	1,400
전환원가	10,000	매출원가(₩30,000 X 70%)	21,000
기초 제품	2,000		

<해답> 75. ③

1)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 = ₩9,000,000(변동제조간접원가 예산) ÷ 5,000시간(기준조업도) = ₩1,800
2)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270,000 유리) =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시간 – 4,500시간) X ₩1,800
->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시간 = 4,650시간
3)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 = ₩12,000,000(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 ÷ 5,000시간(기준조업도) = ₩2,400
4)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 = (5,000시간 – 4,650시간) X ₩2,400 = ₩840,000 불리

<해답> 76. ⑤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동일하다. 다만, 원가성이 있는 정상공손의 원가는 합격품에 배분하지만 원가성이 없는 비정상공손의 원가는 당기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답> 77. ③

구분	제품 A	제품 B
단위당 변동원가	₩1,220	₩1,440
단위당 공헌이익	₩300	₩420
단위당 시간	5시간	6시간
시간당 공헌이익	₩60	₩70

1) 유휴 직접노무시간 = 5,000시간 - (500단위 X 5시간) - (300단위 X 6시간) = 700시간
2) 특별주문을 각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락할 수 있으므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700시간 내에 제약요인인 직접노무시간 당 공헌이익이 큰 제품 B부터 수락한다.
3) 제품 B의 특별주문 직접노무시간 = 110단위 X 6시간 = 660시간
제품 A의 특별주문 수량 = 40시간 ÷ 5시간 = 8단위
4) 특별주문 수락시 영업이익 최대증가액 = 8단위(제품 A) X (₩1,300 - ₩1,220) + 110단위(제품 B) X (₩1,560 - ₩1,440) = ₩13,840

<해답> 78. ③
1) S2의 자가소비부분을 제외하고 용역수수비율을 재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S2 -> S1 = 15%/50% = 30%
S2 -> P1 = 20%/50% = 40%
S2 -> P2 = 15%/50% = 30%

2) P1에 배분된 금액(₩142,500) = 0.5 X S1 + 0.4 X S2
P2에 배분된 금액(₩78,000) = 0.2 X S1 + 0.3 X S2
해당 식을 연립하면 S1 = ₩165,000, S2 = ₩150,000

3) S1(₩165,000) = 배부전 원가 + 0.3 X S2(₩150,000)
-> 배부전원가 = ₩120,000

4) S2(₩150,000) = 배부전 원가 + 0.3 X S1(₩165,000)
-> 배부전 원가 = ₩100,500

<해답> 79. ③

1) 당기 발생한 직접재료원가 = ₩12,000(기초 직접재료) + ₩120,000(직접재료 매입액) - ₩15,000(기말 직접재료) = ₩117,000
2) 기말재공품에 포함된 직접재료원가 = ₩117,000 - ₩99,000(당기제품제조원가에 포함된 직접재료원가) = ₩18,000
3) 기말재공품원가 = ₩18,000(직접재료원가) + ₩12,000(직접노무원가) + ₩6,000(기말재공품에 예정배부된 제조간접원가) = ₩36,000

<해답> 80. ③

1) 목표생산량 = 21,000단위(목표판매량) + 400단위(기말제품) - 700단위(기초제품) = 20,700단위
2) 재공품(원재료 X) = 20,700단위(목표생산량) + 800단위(기말재공품) X 100% - 800단위(기초재공품) X 100% = 20,700단위
* 원재료 X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므로 100% 완성도를 적용한다.
3) 원재료 X의 목표구입량 = 20,700단위 X 2kg + 2,400kg – 1,800kg = 42,000kg
4) 재공품(원재료 Y) = 20,700단위(목표생산량) + 800단위(기말재공품) X 100% - 800단위(기초재공품) X 0% = 21,500단위
* 원재료 Y는 공정의 50% 시점에 전량 투입되므로 기말재공품은 100%, 기초재공품은 0%의 완성도를 적용한다.
5) 원재료 Y의 목표구입량 = 21,500단위 X 3kg + 4,500kg – 3,000kg = 66,000kg

[[2026년 제 37회 감정평가사 회계학 총평]]

우선, 2026년 감정평가사 시험을 치르신 모든 수험생 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부터 전합니다.
더불어 해당 시험을 위해 고생한 시간들이 하루의 테스트 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견 부당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지나온 시간들이 분명 여러분들에게 체득화 되어 어려운 순간을 겪을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37회 감정평가사 회계학 시험에 대해 설명드리면 한마디로 역대급 난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시험을 출제할 때 킬링포인트로 출제하는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모두 모아서 출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회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해당 문제들을 겪으셨을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하다보니 제가 시험문제를 확인하고 나서 더 기운이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간은 소요되어도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부분들이 다수 출제되어 과락 이상의 점수는 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말문제는 한두문제를 제외하고는 이미 풀이해 봤던 유형들이었고 복구충당부채의 금액변경, 유효이자율 계산, 사채조기상환, 차입원가 자본화, FVPL금융자산(투자지분상품), 자본총계, 반품조건부판매, 재매입약정, 순확정급여부채, 증분공정가치, 감가상각비 계산, 손익분기점 판매량, 제조기업의 원가흐름, 표준원가계산, 상호배분법, 정상개별원가계산, 종합예산 등은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점쳤던 문제들이라 해당 문제부터 풀이를 이어갔다면 시간내에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외의 문제들은 제한된 시간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학습량 부족이라기 보다는 한 문제당 배부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출제한 출제기관의 오류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도 회계학은 난이도 편차가 있는 과목임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특정 파트만 선별해서 학습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리고 모든 주제를 골고루 학습하겠다는 장기계획을 세워야 하는 과목이라는 점을 꼭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은미 세무사 -

시험문제 가답안 이의신청서
(제37회 감정평가사 자격 필기시험)

■ 신청자 인적사항			
응시자격종목	응시번호	성명	연락처(핸드폰)
감정평가사			
이의신청 내용(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필요 시 이면 별첨 기술 가능)			

< 이의신청 문제 요약 >

1. 37회 감정평가사 회계학 A형 66번

< 구체적인 이의신청 내용은 별첨 기술하였습니다.>

Ⅰ. 이의신청문제 (회계학 A형 66번)

66. ㈜감평은 20X1년 초 임대목적 투자부동산인 상가건물을 ₩1,000,000에 취득(내용연수 2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다. 20X2년 초부터 동 자산에 대해 원가모형 대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에 해당한다.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으며, ㈜감평의 20X1년 말 이익잉여금은 ₩2,000,000이었다. 투자부동산에 대한 회계처리 반영 전 20X2년 당기순이익이 ₩500,000일 경우, 상기 회계변경 반영 후 ㈜감평의 20X2년 말 이익잉여금은? (단, 상기 건물 이외의 투자부동산은 보유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 처분은 없다.)

연도	20X1년 말	20X2년 말
공정가치	₩800,000	₩700,000

① ₩1,850,000 ② ₩2,000,000 ③ ₩2,200,000 ④ ₩2,250,000 ⑤ ₩2.500,000

1. 가답안 : 정답 ④

< 가답안의 풀이방법>
1) 20X1년 말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 = ₩150,000 감소
-> 20X1년도 원가모형에 따른 감가상각비 ₩50,000을 투자부동산 평가손실 ₩200,000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은 ₩150,000 감소한다.
2) 20X2년 투자부동산 평가손실 = ₩100,000
3) 20X2년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반영 후 당기순이익 = ₩500,000 - ₩100,000 = ₩400,000
4) 20X2년 말 이익잉여금 = ₩2,000,000 - ₩150,000 + ₩400,000 = ₩2,250,000

2. 문제제기

정당한 회계변경에 따른 소급효과는 이에 따른 영향을 모두 결정할 수 있다는 전제가 제시되어야 한다.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특정 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회계처리가 요구되므로 제시된 공정가치의 자료만으로는 소급에 따른 누적효과를 모두 결정할 수 있다는 신뢰성 있는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3. 문제제기의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호 문단 24, 25

문단 24 : 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산 및 부채의 기초장부금액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변동하는 자본 구성요소의 기초금액을 조정한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은 당기일 수도 있다.
문단 25 :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전진적용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문단 25에 따라 제시된 20X1년 말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가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소급적용의 한계로 20X2년 말부터 전진적용한다. 이 경우 20X1년 말 이익잉여금에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20X2년도 투자부동산 평가손실 ₩100,000을 반영한 후의 20X2년 당기순이익 ₩400,000만 20X1년 말 이익잉여금에 가산되어 20X2년 말 이익잉여금은 ₩2,400,000이 된다.

4. 요구사항 : 선지 내 정답이 없으므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